

목 차

<보기> 막 넘기지 마라

<보기>는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

7모 적용 연습

· 현대시 <보기>

<보기>는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

대부분 <보기>를 먼저 볼지 나중에 볼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기>는 먼저 모든 나중에 모든 무조건 봐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은 <보기>를 어디까지 분석해서 작품과 연결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7모에 적용하는 예시를 보며 같이 가봅시다.

· 현대시 <보기>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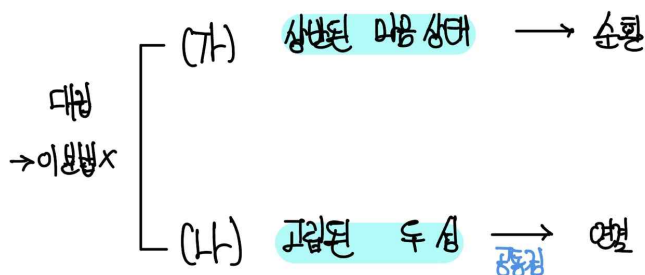
(가)와 (나)는 대립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를 먼저 봤다면,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요?

이러한 유형의 보기는 앞에서 공통점을, 뒤에서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공통점: 대립 관계 → 이분법 X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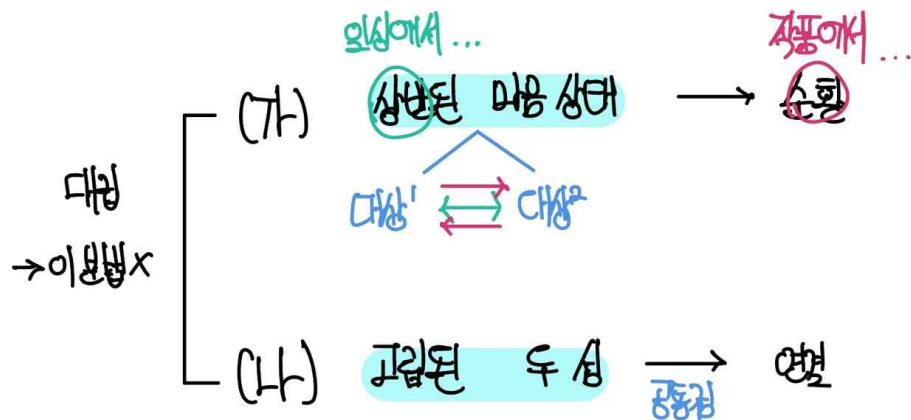
여기까지가 모두가 읽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기>를 먼저 보겠다는 것은 작품을 독해하기 전에 ‘프레임’을 짜서 들어가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서 끝내서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미리 읽어내고 시작할 수 있는지 가봅시다.

〈보 기〉

(가)와 (나)는 대립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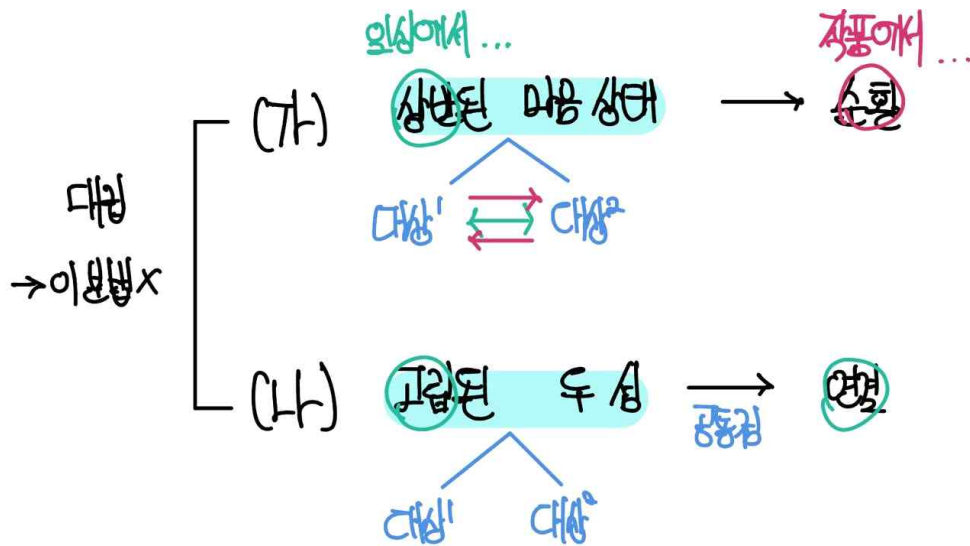
여기서 (가)의 ‘상반된 마음 상태’에 주목합니다. 작품에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상이나 상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바로 ‘대상’임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상황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 기>

(가)와 (나)는 대립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에서는 두 섬이 고립되어 있다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독해할 때 어디가 고립을 드러내는지, 어디가 연결을 드러내는지를 파악합니다. 공통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두 섬'도 대상이겠습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야할 프레임을 도식화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독해하며 저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찾아서 대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품을 같이 봅시다.

● 25년도 7월 (가) 김수영,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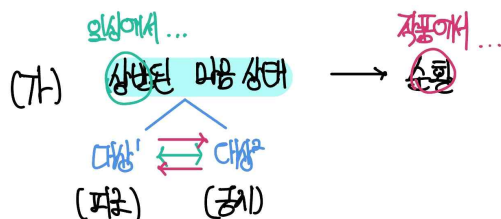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피로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금지
오늘은 필경 금지의 날인가 보다

화자 '나'는 순환을 위해 '피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뜻입니다.
설움과 아름다움 대신 금지를 가지고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기>에 대응시킬 대상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상황: 과거(피로) → 미래(피로), (설움, 아름다움)X → 금지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금지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부어
젖지 않는 것

중간에 환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화자의 시작점과 최종점은 금지입니다.



이처럼 금지에서 시작해 피로를 거쳤다가 다시 금지로 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의 빈칸을 채웠으니 대응하면 됩니다.

금지가 파도처럼 요동치는데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붓는데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설적이네요. 금지의 속성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대상: 금지(청각X, 촉각X)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금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 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금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려도 싫지 않은 금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설움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
는
금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피로도 금지도 화자가 만듭니다. 대구를 통한 반복이 드러납니다. 작가는 언제나 강조하고픈 바를 반복하기 마련이죠...

금지와 설움이 순환함을 보이며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 화자 자신이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상황: 과거(피로) → 오늘(금지) → 미래(피로)

대상: 피로 ↔ 금지

화자: '나'(표면상의 화자)

● 25년도 7월 (나) 강은교, 「섬-어떤 사랑의 비밀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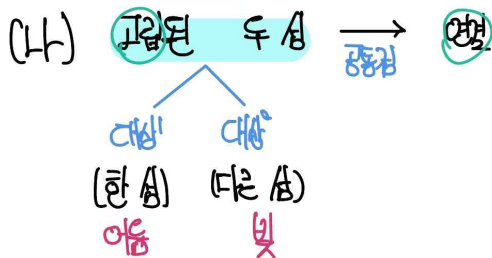
한 섬의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가네.

아픔이 서로 다른 두 섬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대상: 한 섬, 다른 섬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어제는
가장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두 섬이 단절된 모습을 명암의 대비를 통해 드러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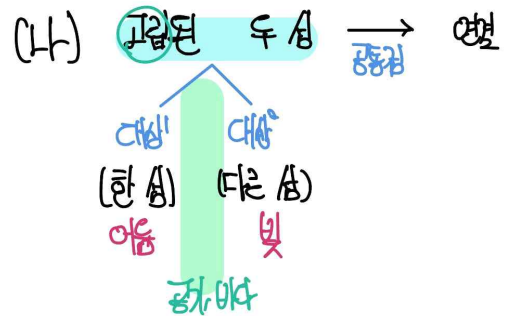
이제부터 쪽 <보기>와 연결지으며 갑시다.

대상: 한 섬(어둠), 다른 섬(빛)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지었네,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우리여 왜,
이를 수 없는가 없는가.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가네.

섬과 섬 사이에 공기가 흐르고 바다가 넘칩니다.
단절감이 느껴지네요.

대상: 공기, 바다(단절)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다른 섬의 눈물은 재.

대상: 한 섬의 눈물(불), 다른 섬의 눈물(재)

불과 재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파스한
한 바다의 ⑥하늘을 껴매고 있었네.

한 섬의 눈물(불)과 다른 섬의 눈물(재)이 만나 빛나며
나뉘어진 하늘을 연결해줍니다.

이때 눈물은 아픔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불 + 재 → 빛(연결)

